제로원의 원리와 제2복, 관찰
(벧전 5: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제로원의 원리와 제2복, 관찰'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의 삼박자 축복, 삼박자라고 해도 좋고 삼중이라고 해도 좋고 그 명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복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두 번째가 관찰이라고 하는 사실을 앞에서 이미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로원의 원리, 우리가 일상적으로 십자가를 기억하기에 좋은 상징적인 기호로 삼아서 제로원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제로 원, 스위치를 끄고 켜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두 번째 언급된 관찰이라는 복을 함께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아주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까 너희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돌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멜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돌보다 관심을 갖다'라는 뜻도 있지만 아주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 때의 돌보심은 '그에게 염려가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염려가 있음'
그러니까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번역을 해 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그에게 너희들의 삶의 문제들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들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염려하지 말라. 이 간단한 구절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상당히 심각한 내용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세상 우리들의 삶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염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속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나의 삶을 염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을 염려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뱀의 형상을 하고 아담에게 나타나서 유혹을 할 때 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도 다 속계산이 있으셔서 그래,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야!'
이 말이 맞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면서 하나님과 같아집니다. 그 선악판단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선악판단의 모습이 무엇이냐,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원래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입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느냐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온 인류,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입고,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염려,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있고 공중이 있고 그리고 우리 몸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이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공중에 있어요. 그런데 공중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몸에 붙어버리면서 모든 죄악 된 삶이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몸이 묶여있을 때, 몸을 통해서 몸의 주변의 상황과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때 몸을 통해 들어오는 재료들이 마음에 독소를 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염려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 뱀의 사건이 나옵니다. 불 뱀에 물려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리 뱀 장대를 보고서 살아납니다. 그 사건을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사건에 예표로 삼으시잖아요? 십자가 사건에 앞서서 있었던 어떤 모형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역사인데 그 구원이 뭡니까? 바로 마음이 몸에 묶여있으면 몸을 통하여 접하는 세상에 대해서 염려가 생기는데 이게 불 뱀의 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 뱀의 독에서 놓이려면 내가 구리 뱀 장대가 들리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그 나를 봐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염려라고 하는 이 불 뱀의 독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돼서 불 뱀의 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까? 지금 마음이 몸에 묶여서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죽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죽어서 빠져나오는 거라구요.

어렸을 때 본 영화중에, 지독한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려면 죽어야만 빠져나옵니다. 종신형을 받은 사람들만 가두는 감옥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탈출을 하는데 동료죄수가 죽은 시체 밑에 숨어서 빠져나왔어요. 무슨 영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면만 기억이 나요. 동료죄수가 죽어서 그 죽음 밑에 숨어서 나와요.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서 몸에 묶여가지고 평생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종노릇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주님의 죽음 밑에서 주님의 죽음과 딱 달라붙어서야 우리 마음이 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오고 어디로 갑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십자가 보면서 완전히 우리 마음에 스위치가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디서 활동하게 돼요? 어디서 다시 살아납니까?

어디서 1이 됩니까? 어디서 켜집니까? 천국에서 켜져요.

우리 마음이 활동하고, 우리 마음이 염려하고, 걱정할 일은 어떻게 주님에게 연합해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갖는 교제 안에 참여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많이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벌어들이느냐, 돈을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측량할 수 없는 넓은 사랑을 어떻게 많이많이 내 마음이 벌어들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되게끔 이끌어 가시는지는 '보라'는 얘깁니다. 관찰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참여의 복과 관찰의 복은 제로 원으로 설명하면 뭡니까? 참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꺼지고 내 마음이 천국에서 다시 켜지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제2의 복 관찰은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꺼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마치 불 꺼진 아파트 같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이 불 꺼진 아파트처럼 내 마음의 염려가 꺼져 버려요. 십자가 보면서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불 꺼진 아파트처럼 되는데, 원래 불 꺼진 아파트 같은 내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염려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 꺼진 내 삶의 아파트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염려를 켜시면서 ' 아, 얘가 어떻게 먹고 살지?'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시고, '얘가 어떻게 입어야 되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염려 때문에 먹고 입고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일단 염려하시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뭐하고 살지?', 노후염려 하잖아요? 노후염려를 우리가 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후를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후를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내가 자식을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염려의 자리에 내가 서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식을 염려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염려가 꺼져서 불 꺼진 아파트 같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당신의 염려를 켜시고 하나님이 활동하실 때,

여러분, 밤에 길을 지나가는데 아파트 1층집에 무슨 블라인드 같은 것도 없고 버티칼이나 이런 것도 없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상태면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아파트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염려의 불을 켜놓으시고 환하게 밝혀 놓으시고 염려하시는 대로 해결을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활동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게 복입니까?
공중에 있는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몸에 묶여가지고 그 몸을 움직여 가면서 이리 움직여 보고 저리 움직여 보면서 돈 좀 벌어 보려고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자식 좀 잘 키워보겠다고 애쓰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위해서, 직장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이 몸을 내가 붙들고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이 수고하셨습니까?

근데 먹고 사는 그것 원래 이 땅에서 일이 진전되고 전개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염려에 의해서 되는 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 원래의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평생 내 몸을 내 마음이 걸머지고 이 몸을 쓸고 닦으면서 이 몸을 움직여서 이 땅의 내 인생을 경영해 보려 했던 이 부담감과 이 진땀어린 수고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냥 환하게 불 켜져 있는 아파트 안에서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활동해 나가시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원래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삶을 관찰하라,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기 때문에 염려가 그에게 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삶의 염려가 오리지널하게 주께 있다. 돈 염려? 원래 오리지널하게 돈 염려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써야 될 돈 염려는 하나님께 있다. 그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지 않지요?

우리는 그냥, 그래도 내가 그저 붙들고 염려하면서 살아야 그래도 삶이 뭐 좀 제대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전혀 익숙하지 않고 낯설잖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원래가 계획되기를 원래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보는 겁니다. '보라! 백합화가 어떻게 입는지, 공중의 새가 어떻게 먹는지 보라!'
우리는 단지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마치 불 꺼진 아파트처럼 꺼라, 마음을 꺼라, 제로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염려가 켜지신다, 제로 원!

여러분, 그러면 올바른 관찰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 가시면류관 쓰시고, 살이 찢기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창을 받아 옆구리에 구멍이 나신 그 주님의 몸이 내가 죽은 거라고 일치시킬 때 우리는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이 꺼지면서 빠져나옵니다. 제로가 되면서…

제로가 된 상태에서 관찰을 하는데 정말 관찰의 참된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면서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사건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의 '보라!'가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라는 말씀이… 그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뒤로 바짝 쫓아오는 애굽군대를 피해서 구원을 받게 된 그 사건과 그리고 역시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가 귀신들린 점쟁이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많이 맞고 착고에 묶여서 깊은 감옥에 던져졌을 때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의 구원 사건, 똑같은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나는데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활동을 어떻게 관찰하고 있느냐를 함께 살펴보며 참 관찰이 뭔가를 알아보자 이겁니다.

자, '보라!' 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우리가 관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키워드가 뭐냐 하면 찬양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미리암이 홍해의 구원사건을 경험한 뒤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 뒤에 바로 '마라의 쓴 물' 사건이 있는데 그 마라의 쓴 물이 단 물로 바뀌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방금 전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벽으로 세워진 것처럼 갈라졌어요. 그 광경을 한 번 imagination을 해 봐요. 어떻겠습니까? 그 기적을 보고나서 찬양했습니다. "와! 굉장하다!" 그리고 조금 목이 마르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일치하는 행동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 놓고 감옥으로 가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에 갑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 당시의 매는 채찍일 경우가 많아요. 채찍 끝에는 쇠갈고리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살점을 뜯어냅니다. 사십에 하나 감한 매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십대를 치면 많은 경우에 죽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친다는 얘기에요.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활동은 지진으로 나타나는데 기도하고 찬양한 다음에 나타납니다.

홍해 사건 때는 기적이 나타난 다음에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활동을 보고 그리고 찬양합니다. 분명히 봤어요.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나왔습니다. 기쁨에 벅차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기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활동이 지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관찰합니다.
정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지진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인 역사를 해서 옥문이 터져나가고 착고가 풀려나가는 이런 기적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묘사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기적의 활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기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바울의 몸과 실라의 몸 주변 삶의 환경 속에서 활동하셔서 기적이 일어날 때 관찰하게 됩니다.
그 관찰의 과정 중에서 액션이 나와요. 간수를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관찰하는 동안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원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관찰이 뭡니까?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관찰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활동을 해 가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대한 내가 하는 모든 염려는 원래가 하나님 것이었으니까. 하나님께

염려가 있으니까. 그 염려를 따라서 활동을 해나가실 때 기가 막힌 일들, 우리가 예전에 듣지도 못했던 일들, 깨닫지도 못했던 일들, 알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것 때문에 기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관찰은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이전의 구약백성들은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볼 때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언제나 사그라졌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활동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도 근거되어 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밝히 보이지 아니하느냐?' 그 깜깜한 감옥에서 마음으로 환하게 조명이 비치듯이 주님의 십자가가 비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죽으심에 연합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나면 부활과 연합하고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와의 교제에서 느끼는 그 기쁨을, 아버지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기쁨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늘에 참여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아버지와 우리의 주님이 교제하시는 것에 참여해서 더 이상 기뻐하게 될 이유가 없을 만큼 기쁨이 가득한 자에게 하나님은 관찰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일이 더 이상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활동 때문에 기뻐하기에는 하나님 때문에 충분히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쁜 자에게 하나님은 관찰할 수 있을 하나님의 활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활동을 전개해 나가십니다.

참여의 복이 우리 마음 가득하게 기쁨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한번 일으키시면 그 기적에 마음이 붙어버려요. 오히려 세상으로 끼어들어간다 이겁니다. 세상에 마음이 밝히 켜진다 이거에요. 세상의 삶에서 꺼져야 될 마음이 켜져 버립니다. 스위치가 켜져 버려요. 그래서 기적 한번 일으키면 광고하고 난리가 나는 거지요. 병 낫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사이비예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십자가 이전의 제자의 상탭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의 상태, 사도들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좋은 비교가 또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던 제자들 70명을 파송합니다. 파송을 받고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기절할 일이에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서나 있었던 일이고 말로나 듣던 거지 아니 어떻게 내가 말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갑니까? 환장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주님!" 굉장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항복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덩실덩실

춤을 추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당연하지요, 이해가 갑니다.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보통일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 치듯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그런데 조용히 해, 뭘 그런 걸 기뻐하고 있어, 너희들에게 내 이름으로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기쁨을 완전히 채우지 않은 채로 너희가 기적을 일으키면 너희는 기적을 이용하게 되고 악용하게 되고 개인적인 은사로 착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관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마음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내게로 와라, 병 고쳐 줄게, 내게로 와라 참 지혜가 여기에 있다,’ 관찰을 못해요, 관찰을.
끼어들어가 버립니다. 마음이 세상에 다시 켜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는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기쁨을 바랄 수가 없어요.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기뻐지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전부 십자가에서 죽고 그 기쁨을 원하는 마음의 열정을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와 주님의 교제에 참여함으로 기쁨을 다 채워 넣으세요. 세상을 향한 기쁨의 마음의 주머니를 다 하늘에서 채워 넣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가 없습니다. 활동하시는 족족 마음이 달라붙어서 이 세상에 끼어들어가지고 세상에 콩 놔라 팥 놔라 불이 켜져 버립니다.

내 염려로 아파트를 밝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가끔 일어나면 아주 설레발을 치며 광고하는 것이 가관이에요.

보세요. 그렇게 귀신이 항복한다고 좋아했던 제자들이 -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 왜 기뻐합니까? 제자는 스승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완성시키려는 자들이고 자기 인격을 완성시키려는 자들이니까, 이게 웬 떡입니까? 완성에 큰 걸음으로 성큼 다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하여 온전한 참여가 일어나서 하늘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됐을 때 앉은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앉은뱅이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 이 분이에요, 이 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때 깜짝 놀라서 “사람들아,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 나의 권세와 경건이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전혀 기쁘지를 않아요, 앉은뱅이를 고친 것 자체는.

이 베드로의 기쁨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사도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제자 됨을 벗어난 것이에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나를 완성시키려고 했던 제자 됨이 끝나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관찰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참여의 복을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 때문에 기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활동을 보며 관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활동으로 기뻐하는 자는 세상에 다시 끼어들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에 다시 켜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에 대해 제로의 상태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냥터가 아닙니다.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냥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참여의 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광지예요. 관광지. 보는 거예요. 관광이 뭡니까? 눈으로 보는 거지요. 볼 관(觀) 자예요. 빛을 본다, 관광(觀光), 빛을 보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의 빛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모든 광경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관광.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 붙잡으면 이 세상, 내 삶, 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내 삶은 불 꺼진 아파트가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불 꺼진 아파트와 같은 삶의 모든 면에 대해 염려를 갖고 계십니다. '그에게 염려가 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그래서 불이 켜지면서 환한 관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염려가 켜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보는 것이고, 나를 이 몸을 보는 거예요. 몸이 놓여진 삶의 상황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고 가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관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염려가 켜지는 하나님의 활동의 빛을 보는 거죠.

사도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던 사도바울이 위의 것을 찾은 거예요.
하여간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계셨던 분 중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승천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대하고 있는 분이 하늘아버지 성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천국에서 대하고 있는 그분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바울이 지금 그 그리스도 안에서 -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버지 주변을 빙글빙글 도시면서 아버지를 보며 깡충깡충 뛰며 기뻐하시는 모습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라'
자, 주님께서 아버지를 보시고 하늘에서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면서 뭘 하셨겠어요? 주님이 계속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가 아빠와 같은 뜻인데, 우리 어릴 때 아빠라는 말을 쓰잖아요? 60 된 사람이 80 된 아버지에게 아빠란 말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어린아이가 쓰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뱅뱅 돌면서 뭐 하겠어요? 말 거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한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계속 아버지께 말을 걸고 계시는 주님의 속에 참여했다가 그 속에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관찰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내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활동은 관찰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미리암의 감사처럼 돼버리면 이 세상에서 마음이 켜져 있는 상태 아직도 세상의 삶에 내가 끼어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감사가 돼버리면 이 감사는 제자의 감사가 됩니다. 내가 나를 완성하려고 하는 의도로 세상의 삶을 이끌고 있는데 내 의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 감사하다, 이것은 가짜 감사입니다.

오직 하늘의 기쁨으로 마음이 가득차서 더 이상 기쁨이 필요 없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닌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박 터진 사람들입니다. '모든 삶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염려는 본래 하나님에게 있는 염려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완전히 마음이 죽어 버려라, 꺼져 버려라, 제로가 되어라, 자식염려 제로, 경제염려 제로, 건강염려 제로, 모든 면에서 제로가 되어라.
왜? 모든 염려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염려가 켜질 때 불 꺼진 아파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스위치를 켜시고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활동의 빛을 관광하라,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실 테니까.
대박 난 것 아닙니까? 누가 부러워요? 빌 게이츠가 부러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염려를 따라 계획하시는 선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 가실 텐데, 우리는 보고만 있으면 되는데, 내 마음의 기쁨은 이 땅의 그 누구도 허물 수도, 훼손할 수도, 방해할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고 이 지상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려 갈 텐데,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이게 대박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횡재가 아니고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멈췄어요.
아니 내가 뭔데 이런 복을 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지 못하고 뛰쳐나가서 두어 시간 산책하고 왔습니다. 마음이 못 견디겠어요. 벅차서 감당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동일시하면서 부활에도 연합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과도 연합하셔서 하늘에서 참여의 복을 누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활동이 어떡하든지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이 느끼시는 그 분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십자가를 마음에 밝히 보는 일에 주력하는 겁니다.

직장에 나가도 학교에 가도 집에서 살림을 살아도 주님이 밝히 보이지 않으면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염려가 켜지면서 모든 게 다 이끌어져 가는 것을 관광지에서 관광하듯이 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동안에 제 3의 복, 액션의 복이 또 열리게 될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 없습니다. 건강도 그저 그렇습니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양이 자랑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력해야 될 것은 어떡하든지 주님의 십자가에서 한시도 빼지 않고 연합함을 통하여 참여의 복을 통해 기쁨으로 채우는 일에 주력하게 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주어지는 제2의 복, 관광의 복, 관찰의 복, 감사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